기피하면서 사랑해야하는 모순

(요한복음 19:17~30)

17.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18.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21.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기피하면서 사랑해야하는 모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기피하면서 사랑해야하는 모순”
이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접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의미의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도 간단히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예수님께서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던 두 강도 가운데 위치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기록이 사뭇 깊고도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왜 이 장소를 해골이라고 불렀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언덕이 해골 모양으로 생

겼다고도 하고, 그곳에 시체가 나뒹굴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해골이라는 이름에는 인간이 살면서 가장 기피해야 될 장소임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매장되지 못하면 시체가 나뒹굴다가 백골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체가 뒹굴고 백골이 드러난 곳에서는 그 누구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앉아 쉴 수도 없고 도시락을 먹을 수도 없으며 장기나 바둑을 둘 수도 없고 피크닉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해골이 있는 곳은 어쨌든 피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골고다는 이처럼 사람들이 잠시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기피대상 0순위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두 강도 가운데 매달리시게 됩니다. 이 상황이 가리키는 의미 또한 해골의 의미와 같습니다. 해골의 언덕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듯이, 사형당하는 강도들 사이에 있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해골도 사형수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피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두 강도 사이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신 것으로 끝났다면 편했을 것입니다. 죄 사함의 효과만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 사함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고 예수님 믿기는 곧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접근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가장 기피해야 될 환경과 처지에 놓이셨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기피해야 될 십자가의 환경과 처지에 놓이시고는 “내게로 와서 나와 연합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왕궁 뜰에서 처형당하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기는 조금이라도 쉬웠을 것입니다. 적어도 왕궁은 피해야 될 자리가 아닌 선망의 자리이고 예수님께 간다고 해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거나 죽을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잔잔한 호숫가의 푸른 초원에라도 십자가가 섰다면 예수님께 다가갈 때 피크닉 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죄 사함을 받았다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곳은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이고 사형수인 두 강도의 사이입니다. 이러한 위치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기피하게 되고 세상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는 정반대를 향하고 있기에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해골이 의미하는바 가장 기피하고 싶은 상태와 이와는 반대로 궁궐이나

왕궁이 뜻하는 가장 선호하는 대상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골과 궁궐 사이에 사람의 환경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궁궐을 향하고자 합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고 개선되고 나아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궁궐의 반대 방향에 있는 해골의 언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가야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18절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 믿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한 해골과 궁궐이라는 두 지점의 사이에 존재합니다. 실제 삶이 해골에서 가까울지라도 마음의 방향 자체는 궁궐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방향 자체를 돌려서 해골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기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술쟁이 같은 모양으로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심술을 부리시듯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그 독생자와 연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두 강도 사이의 위치 또한 해골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수인 두 강도의 사이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사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가 잘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할 두 강도 사이에 내 자리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가장 기피하는 장소인 십자가에 죽으실 자리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고 연합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기피해야 될 장소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바람과 욕구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궁궐을 향하던 방향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바람과 욕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세상에서 궁궐에 가까운 장소로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한 십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싶은 마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한마디로 말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에 십자가의 자리를 정하신 것일까요? 해골의 언덕, 그리고 두 강도 사이는 세상의 중심부로부터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을 뚫고 바깥으로 나가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의 대기권이 가장 엷은 층이고, 세상 바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장 기피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지하를 돌고 있는 마그마가 지표의 가장 얇은 곳을 뚫고 나와 분출하면서 화산이 생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구는 이 세상 안에 갇혀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은 이 세상의 지층이 가장 엷은 곳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하면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바깥으로 분출되듯이 마음은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뚫고 나가기 가장 쉬운 장소를 선택하셨고 그곳이 바로 해골의 언덕이고 두 사형수 사이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궁궐을 향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사이의 자리를 꿈꾸며 살던 삶을 멈추고 반대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가장 기피하고 싶어 하는 0순위의 상황과 처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사람들은 궁궐 쪽을 향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자리를 향해 가까워질수록 기뻐합니다. 그렇기에 기쁨이 안 되는 해골과 사형수 사이는 기피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처음부터 천국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입장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 또한 공생애가 아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구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기피해야 될 곳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왜 기쁨의 소식인지는 천국의 입장에서 볼 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세상 자체가 기피의 대상입니다. 천국의 좋음과는 비교할 수 없어서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가장 기피하고 싶은 곳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궁을 향하고 형통한 사람들 사이의 자리를 꿈꾸는 대신에 그 반대를 향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어도 천국에서 볼 때는 이 세상 자체가 해골의 언덕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빠져나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볼 때 이 세상이 주는 자리는 두 강도 사이에 위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돼봤자 해골의 언덕입니다. 진정한 생명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는 사망

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이 세상에 갇혀있다는 상황 자체가 사망의 장소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좋아할 수 없습니다. 무덤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음을 좋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나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좋아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관점에서는 두 강도 사이에 내 자리가 마련된 것과 같습니다.
천국의 입장에서 구원은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왕궁을 향하거나 형통한 사람들 사이에 나의 자리가 있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세상에 깊이 빠져드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궁과 형통함과 반대되는 해골과 두 사형수 사이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에 우리의 의식과 마음은 화산이 분출하듯이 세상 바깥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세상 안에서 우리 마음의 욕구가 왕궁이나 형통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좋은 환경을 욕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막으시고자 십자가의 자리를 골고다 해골의 언덕과 두 강도 사이에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피하고 싶은 자리로 가야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사람은 예수 믿기 글렀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청와대에 들어가 있더라도 의식과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피하고 싶은 자리인 십자가를 향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름답게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청와대에 있더라도 의식과 마음은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피하고 싶은 자리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골과 두 강도 사이의 위치를 좋아하셔서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 또한 여전히 기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대신 궁궐과 형통 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반대 방향인 세상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부로부터 가장 끝에 있는 골고다의 해골과 두 강도의 사이라는 자리를 기피하기 위해서는

세상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 17~18절은 믿음의 총정리입니다.

이어지는 19~22절에서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팻말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강제집행이 빌라도에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선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선민은 말 그대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유일한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선택된 사람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부르고 공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떠올릴 때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돈을 향하여 가지고 싶다는 마음의 욕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 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민은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 등을 비롯한 세상적인 가치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을 갖고자 욕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식이 있음을 느끼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고, 마음을 좋음으로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여 유일한 좋음으로 욕구하는 것이 선민입니다. 선민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존재감과 좋음을 느끼면서 욕구합니다. 그러나 선민이라면 의식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이루어집니다.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의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태를 첫 번째 존재감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나와 십자가에서 연합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존재감으로 자아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민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첫 번째 자아의식으로 삼을 필요도 없습

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민이기에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의식이 예수님을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으로 느낄 때 함께 죽음으로 연합하는 자아의식이 형성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기피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해골 언덕을 기피하고 두 강도 사이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식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의식과 마음을 데리고 가는 여권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골고다 해골의 언덕과 두 사형수 사이의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피하고 싶은 자리이고 잠시도 머물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시체가 나뒹구는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궁궐과 아름다운 정원이 가꾸어진 장소를 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반대의 자리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사형수인 두 강도 사이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강도 사이는 꿈에도 서기 싫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합니다. 그 자리를 향해 가야만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을 빠져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됐다고 좋아하는 것은 시체가 나뒹구는 해골 언덕을 좋다고 여기며 터를 닦고 주저앉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좋아하여 맞이하게 되는 사망의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잘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잘되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의 욕구가 세상을 향해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난다면 세상을 기피하며 세상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이제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채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간구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해골의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두 강도 사이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궁궐과 반대가 되고 형통한 사람들 사이의 자리를 등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되 아예 세상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세상에 남아있는 몸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체성의 그릇이 됩니다. 나의 주체성이 빠져나간 몸이라는 장갑을 아버지의 주체성이 온전히 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진행될 것입니다. 골고다 해골의 언덕과 두 강도 사이에 위치한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세상에서 최고로 기피하고 싶어 하는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기피의 방향을 가속화하여 기필코 세상을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